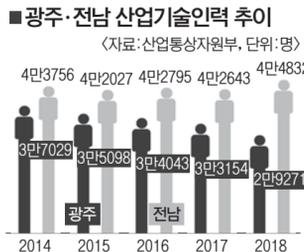


광주 산업기술인력이 빠져나간다

산자부 실태조사 발표...광주 2만9271명 4년새 7758명 ↓ 기아차·삼성전자 납품 협력업체 등 기술인력 유출 가속화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인공지능 중심도시’ ‘에너지밸리 조성’ 등 미래 먹거리 산업 현안이 쏟아졌지만 광주 산업기술인력은 4년 연속 줄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발표한 ‘2019년 산업기술인력 공급실태조사’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지역 산업기술인력은 광주 2만9271명·전남 4만4832명 등 7만4103명으로 집계됐다. 전국 산업기술인력은 166만1446명으로, 전국 대비 광주·전남 인력비중은 4.4%로 나타났다. 광주·전남 산업기술인력은 4년새 6700명 줄며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지역 산업기술인력은 지난 2014년 8만795명으로 처음 8만명을 넘어섰지만, 2015년 7만7125명, 2016년 7만6838명, 2017년 7만5797명, 2018년 7만4103명으로 해마다 감소했다. 특히 광주지역은 같은 기간 3만7029명

(2014년)→3만5098명(2015년)→3만4043명(2016년)→3만3154명(2017년)으로 매해 1000명씩 줄다가 2018년에는 2만9271명으로 전년에 비해 3883명(11.7%) 급감했다. 5년 전에 비해 광주 산업기술인력은 7758명 감소했다. 전국 대비 광주 산업기술인력 비중도 2014년 2.4%, 2015년 2.2%, 2016년 2.1%, 2017년 2%, 2018년 1.8%로 하향세였다. 전국의 산업기술인력 100명 가운데 광주는 2명도 채 확보하지 못한 셈이다. 산업기술인력의 절반 가까이(49.6%)는 수도권에 몰려 있었고, 17개 시도별로 보면 광주(1.8%)는 제주(0.2%), 강원(0.7%)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적었다. 산업기술인력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29.5%)였고 서울(15.4%), 경남(10%), 경북(8.4%)이 뒤



를 이었다. 실태조사를 벌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측은 광주 산업기술인력이 크게 줄어든 주요 원인으로 ‘자동차 생산·수출의 큰 폭 하락’을 들었다. 산업기술진흥원 관계자는 “국내외 수요 부진 등의 이유로 지난 2018년 광주 자동차산업생산(-10.4%)은 전국(-3.8%)보다 큰 감소폭을 보였다”며 “수출 최대 시장인 북미지역과 베트남, 필리핀 등 아시아 신흥국 자동차 수출과 중남미 승용차 수출도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광주지역 기술제조기업 대부분은 기아

자동차나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협력업체로, 외부 영향에 따라 산업기술인력이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새 기술 개발에 도전할 만한 완성품 제조업체가 부족한 것도 문제다. 지난 2018년 말 기준 지역에는 총 1335명의 산업기술인력(광주 692명·전남 643명)이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 산업기술인력 부족인원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직무수행을 위한 자질, 근무조건에 맞는 인력이 부족해서’가 66.7%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변동(불황·호황)에 따른 인력의 수요가 변동해서 ▲해당 직무의 전공자나 경력직이 공급되지 않아서 ▲인력의 잦은 이직이나 퇴직으로 인해서 등 대안이 각각 11.1%를 차지했다. 전남지역 부족인원 발생 이유는 ‘잦은 이직·퇴직’(48.8%)이 가장 많았다. 올해 채용예상 산업기술인력은 광주 967명·전남 1854명 등 총 2821명으로 조사됐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국, 성장률 0.7%P ↓ 순위는 2단계 ↑



OECD 15위·G20 5위
영양이다. OECD 성장률 상위권에는 동유럽 국가들을 포함한 유럽 국가들이 주로 포진할 것으로 보인다. 성장세가 가장 강한 국가는 아일랜드로, OECD는 지난해 아일랜드의 경제성장률이 5.6%에 이를 것으로 봤다. 헝가리가 4.8%로, 폴란드(4.3%)를 제치고 2위를 차지하고 리투아니아(3.6%), 룩셈부르크(3.3%), 에스토니아(3.2%), 슬로베니아(3.1%), 이스라엘(3.1%)의 성장률이 모두 3%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인 선진국인 미국의 성장률이 2.3%로, 전년(2.9%)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여전히 2%대 유지 전망이 지배적이다. 성장률은 오는 30일 발표될 예정이다. OECD 중 한국과 더불어 유일한 아시아 국가인 일본 경제의 경우 1.0% 성장에 예상된다. 일본 GDP는 다음달 중순 발표될 예정이다. 중국, 인도 등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주요 20개국(G20) 중에서 한국의 순위는 5위로 예상된다. G20 중 성장률 1위 국가는 중국이다. 지난해 성장률은 이미 6.1%로 집계됐다. 인도와 인도네시아도 각각 5.8%, 5.0%의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연합뉴스

재개발·산단 호재...광주 광산·동구 땅값 치솟아

광산 5.12% 동구 5.11% 상승 장성 4.92% 화순 4.91% 올라

지난해 광주와 전남지역 땅값이 각각 4.77%와 3.90% 상승했다. 특히, 빛그린산단과 평동3산단 개발 등 영향으로 광산구 땅값이 5.12% 치솟아 지역에서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동구도 주택재개발사업 영향으로 5.11% 올랐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9년 광주·전남지역 지가는 전년에 비해 각각 4.77%, 3.90% 상승했다. 이는 전년도 지가 변동률(5.26%, 4.00%)보다 각각 0.49%포인트, 0.10%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광주는 광산구와 동구의 땅값 상승률이 높았다. 광산구는 광주형일자리 사업이 추진 중인 빛그린산단 개발과 광주경제자유구역으로 예비지정된 평동3차산단 개발 호재, 신가동 주택 재개발 사업 등의 영향으로 5.12% 급증했다. 동구는 용산지구 개발 사업 시행 및 재개발구역 진행에 따른 부근 일대 지가 상승으로 5.11% 올랐다. 전남지역은 광주 인근 지역의 지가 상승이 눈에 띄었다. 광주 첨단3지구와 연계된 장성군은 4.92% 올랐다. 이는 첨단3지구 연구교육단지 사업 진척 및 광주-장성 광역도로 사업 확정에 따른 투자수요 증가에 따른 것

으로 분석된다. 또 화순군은 도곡 온천단지 재생사업 추진 및 식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 예정지 인근의 지가 상승으로 4.91% 상승했다. 전국 지가는 전년에 비해 3.92% 올랐으며, 전년(4.58%) 대비 변동률은 0.66%포인트 떨어졌다. 수도권은 5.14%에서 4.74%로, 지방은 3.65%에서 2.51%로 상승폭이 줄었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5.29%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세종(4.95%), 광주(4.77%), 대구(4.55%), 경기(4.29%), 인천(4.03%) 등 순으로 지가 상승률이 높았다. 하지만, 인천(0.44%포인트)과 대전(0.91%포인트)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전년도 지가 상승률이 꺾였다. 특히, 제주도는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1.77% 떨어졌다. 제주도 땅값이 내림세로 돌아선 건 지난 2008년 0.02% 떨어진 이후 10년 만이다. 이는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시장이 위축되면서 땅값 상승세가 둔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토지 거래량은 또 떨어졌다. 지난해 전체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290만2000필지(1869km, 서울 면적의 약 3.1배)로, 전년도 토지거래량(318만6000필지) 대비 약 8.9% 줄었다. 광주 토지거래량은 6만3393필지로 전년(7만9951필지)대비 20.7%·전남은 17만9971필지로 전년(18만7679필지)대비 4.1% 감소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



“지역농축산물 많이 이용해주세요”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석기)·광주본부(본부장 강형구)가 27일 KTX광주승정역에서 설 귀경객에게 전남산 ‘풍광수’와 광주 ‘빛찬들밭’ 견본 3000여 개를 나눠주며 농축산물 소비촉진 캠페인을 벌였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테크노파크·한국광기술원 레이저 기술 공유

전남테크노파크는 최근 한국광기술원과 전남 레이저산업 관련 중소기업 광융합기술 정보 제공 및 장비 공동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전남테크노파크 레이저시스템산업지원센터와 광기술원은 광융합기술정보와 구축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고 보유 지식재산권에 대한 기술가치 평가정보를 공유한다. 또 공동연구과제 도출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전남테크노파크 회원기업의 기술정보 활용지원 등에 대해서도 협력한다. 유동국 전남테크노파크 원장은 “중소기업들이 레이저산업 시장진입 전 상호협력을 위한 프로그램과 개발 상품의 사업화에 필요한 기업 지원을 광기술원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전남 레이저산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0505-362-90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